

지역 소식통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오늘부터 순차 운영 재개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밝았던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운영을 재개한다.

시에 따르면 그간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휴관에 들어간 복지관이 10일부터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1단계로 1:1로 진행되는 언어치료와 감각통합치료 등 8개 개별프로그램을 우선 시작한다. 2주 후 평생교육과 안마치료 직업지원 등 소규모 그룹프로그램으로 확대운영하며 4주 후 전면 개관 정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기준 지정된 방역관리자를 중심으로 위생관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이에 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1미터 거리두기를 의무화하고 입구에서 발열체크와 손소독 등을 실시한다.

또한, 식당은 가림막을 설치하고 3교대 운영을 통해 비필·접촉감염을 사전에 차단도록 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운동 교실 참여자 모집

정읍시보건소가 3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올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운동 교실 참여자를 미감 시까지 수시모집한다. 운동 교실에서는 개인별 건강체력을 측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구를 이용해 근력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 실천 프로그램으로 1:1 운동처방과 신체활동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민 스스로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생활 실천을 습관화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에서도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준다는 취지다.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측정 등 사전 건강행태 조사를 실시한다. 운동 교실은 이달 15부터 8월 21일까지 10주(월 2회)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센터(☎063-539-6094~5)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천 꽃길 발걸음 유혹

정읍시, 자전거도로 중심 지난해부터 다년생 야생화 식재
2022년까지 4년간 왕복 8km 구간… 초여름 싱그러움 물씬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부터 문화광장 자전거 도로변을 잇는 길에 향기 나는 꽃길이 조성돼 시민 발걸음을 잡고 있다.

시는 내장호와 도심을 잇는 하천인 정읍천 주변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다년생 야생화를 식재했다.

올해는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꽃길 조성지 보식·제초·예취·덩굴제거·급수 등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다.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부터 문화광장 자전거 도로변을 잇는 길에 향기 나는 꽃길이 조성돼 시민 발걸음을 잡고 있다.

여름과 가을철에 차별화된 꽃길을 조성코자 3억 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다년생 야생화인 황금말맞이꽃 7만 3500본과 꽃향유 11만 5800본, 터널구간에는 덩굴장미 860본을 심었다.

올해는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꽃길 조성지 보식·제초·예취·덩굴제거·급수 등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왕복 8km 구간에 꽃을 식재하고 유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꽃길에 식재한 꽃은 꽃향유, 황금말맞이꽃이다.

자전거도로변 한쪽에는 여름꽃인 황금말맞이꽃이 꽃을 식재하고, 바깥쪽에는 가을꽃인 꽃향유를 식재했다.

황금말맞이꽃의 꽃말은 '무언의 사랑'으로 정읍사 여인의 천년의 기다림, 지고자순한 사랑과 어울려 선정·식재하게 됐다.

다른 달맞이꽃과 달리 황금말맞이꽃은 해가 뜨면 꽃이 피고, 해가 지면 꽃잎을 닫는 특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정읍천 꽃길에서 단풍나무 뉘음과 황금말맞이꽃이 어우러져 초여름의 싱그러움을 물씬 느낄 수 있을 것이다"며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꽃길 걷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을철에는 꽃향유가 무리 지어 개화해 보랏빛 절정을 이룬 곳에 허브향 향기와 붉게 물든 단풍나무가 어우러져 향기공화국 정읍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주요 교차로에 리俚더 등 꽃바스와 화단 향기 식물을 식재해 향기공화국 정읍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식초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고창군 ↔ 순천향대학교 PMC 업무협약
2020. 6. 9. (화) 고창군농업기술센터



고창군이 9일 오후 순천향대학교(센터장 송호연)와 고창 식초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기획과 과학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창군·순천향대, 식초산업 육성 맞손

발효식초 산업 과학화 지원 등

고창군이 9일 오후 순천향대학교 PMC(센터장 송호연)와 고창 식초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기획과 과학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식초산업 발전, 고창 발효식초 산업 과학화 지원 등 공동연구를 위해 관학 협력을 추진하고 각 기관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지역발효식초 샘플 100개를 수집해 메타인지노믹스 분석과 가능성 평가, 유전체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순천향대학교 PMCC(Probiotics Microbiome Convergence Center)는 바이

오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프로비아오틱스와 제2의 계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거점 센터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서 면역력을 높이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등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발효식초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순천향대학교 PMC와 협력해 식초에서 유대한 유용균주 발굴과 군주의 유전체 분석 등 과학화 지원을 통해 전통발효식품인 식초를 고창 식품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마늘, 사상 첫 美 수출길

총 304톤… 안정적 판로확보·가격안정 등 기대

부안마늘들이 9일 상차식을 갖고 사상 처음으로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이날 상차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부안군의원, 농협조합장, 유통회사 대표, 농업인 등 50명이 참석했다.

다른 것"이라며 "개방화장실 지정을 통해 주민들의 성숙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방화장실 지정을 통해 주민들의 성숙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 수출은 군과 농업인, 유통조직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뤄낸 결실"이라며 "이번 마늘 수출을 발판삼아 부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세계 각지에 수출되며 K-농산물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품목개발과 해외 판매 행사 등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양파·마늘을 비롯한 딸기, 배추 등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행정적인 뒷받침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정읍시보건소, 금연지원사업 성과 '최우수'

을 선정하고, 건강정책의 목표를 수립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보건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점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기존사업의 문제점을 파악 후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등 보건사업 전 분야, 전 과정에 대해 자체평가를 시행했다. 개개인의 특성에 대해 지역사회 특성까지 반영한 고유의 보건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소개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필요한 맞춤형 보건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함이다.

자체평가에서 활용된 지역사회건강 조사 통계 결과는 근거 기반 보건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정읍시의 '금연계획률' 지표 개선지표는 지난 9월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 활용 우수 사례로 선정돼 질병관리본부가 발행하는 월간 소식지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에 대표적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소개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마늘의 미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